



두그루의 구름향나무앞에서

김철송

오늘은 식수절이다. 서로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아침일찍 일어난 우리들은 원아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에 인사를 드린 후 동상주변에 심은 구름향나무앞으로 다가갔다.

마치 저 하늘의 작은 송이구름들을 층층이 쌓고쌓은듯 해서 이름도 구름향나무라 부르는 이 나무들앞에 서니 나의 마음속으로는 한해전 식수절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꿈같이 모셨던 그날의 행복과 감격이 어려와 목이 메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무심기운동의 첫 봉화를 지펴주신 뜻깊은 이날을 맞으며 어디에 가서 나무를 심을것인가를 생각하느라니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의 모습이 떠올라 이곳을 찾아왔다고 하실 때 우리들은 얼마나 사랑과 긍지, 한없는 기쁨으로 가슴들먹이었던가.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혁명의 계승자, 골간들로 자라는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은 식수사업에서도 마땅히 전국의 앞장에서야 한다고 하시며 구두에 흙이 묻는것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구멍이파기로부터 물주기, 흙다짐에 이르기까지 장시간 우리들과 함께 나무심기를 직접 하시였다.

어른이 되어 후날 이곳을 찾아오면 무성하게 자란 나무를 보며 오늘을 추억하게 될것이라고 하시며 오히려 우리들의 자그마한 수고를 헤아려주시고 내세워주시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심고가꾸는 나무들이 한뼘한뼘 자랄 때 애국심도 자라게 된다고, 어릴 때부터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지녀야 앞으로 당이 맡겨준 초소에 가서도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는 참된 애국자, 당이 바라는 진짜배기일군이 될수 있다고 하실 때 우리들의 심장은 뜨거운 격정

으로 하여 쿵- 하고 울렸다.

그렇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함께 심은 두그루의 구름향나무, 그것은 단순히 유서깊은 만경대의 땅에만 뿌리내린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작은 가슴속에도 애국의 뿌리를 깊이 내렸다.

정녕 나무를 심은 그 시간은 애국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며 애국심이 어떻게 발현되어야 하는가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직접 스승이 되시여 가르쳐준 수업시간이었다.

그 시간은 반나절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들은 한생을 두고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고귀한 진리를 받아안지 않았던가.

이렇듯 우리는 내 나라, 내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까지도 다 자기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주는 김정일애국주의의 참뜻을 교실에서가 아니라 현실속에서 실지체험으로 깨달았다.

하기에 우리는 나무를 심어도 깨끗한 량심과 불타는 애국의 마음을 먼저 묻는 참다운 애국자, 이 땅의 그 어디에 가서도 한몸이 그대로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되어 조국을 떠받드는 참된 일군이 되리라 맹세하지 않았던가.

나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두그루의 구름향나무를 눈여겨보았다.

정말 한해사이에 한뼘두뼘 키돋움하며 푸르싱싱하게 자랐다.

우리의 친아버지이시고 자애로운 스승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우리 원아들은 그와 대비할수 없게 성장하였다.

키도, 실력도, 애국의 마음도...